

불사하는 불교 신자신문 02) 745-8503
01) 285-2680
서울 상봉구 성북동 04) 734-2680
신상선원 전국사 대한불교신문사

법익 조대 태허 스님 본원종 종정

“오직 아미타불 존재에 의지하여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까지도 아미타불과 하나가 될 때 참다운 열불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극한 마음으로 10번만 아미타불 부처님께 귀의하여 일념으로 열하면 오매일여가 되고 궁극에는 생사일여가 되는 법입니다.”

※ 지대한 내함은 12·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무량사 도난문화재 회수

무량사 불상 3구(북쪽유형문 화재 100호·사진가 도난 13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도난 문화재의 회수율이 5%를 밑도는 현실을 감안하면 ‘은’이 좋은 경우다. 하지만 이 문화재들의 소유권이 완전히 무량사로 돌아오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범인은 지난해 2월 불상을 사중에 팔려다 걸거됐지만 당시 문화재보호법상 공소시효 7



년과 특수강도협박의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 걸출은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하지만 범인은 출친 것이 아니라 장물인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선의취득’을 주장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무량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환부로 불상을 되돌려 받았다. 만일 범인이 선의취득을 입증한다면 불상의 소유권을 두고 또 한 차례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범인이 불상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박 씨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의취득제도’에 의하면 절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합장인사

1. 일상생활 가운데 불자님은 합장 인사를 하십니까?
① 꼭 한다 ② 가끔 한다 ③ 하지 않는다

2. 합장인사를 하는 경우는?
① 스님에게만 한다 ② 누구에게나 한다
③ 장소나 분위기에 따라 한다

3.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① 어색해서 ② 상대방이 당황할까봐 ③ 습관화 되지 않아서

설문 참여: 2월 28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부정확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59호 9면에 실습니다.

정토회, ‘인도불교 부흥’ 나섰다

행자운동 등 제4차 1000일 결사계획 발표

석가족 개종 지원...5만명 대상 수계도

일과 수행 공동체인 정토회가 10년간의 3000일 결사를 성공리에 회향하고 본격적인 대중중심 불교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인도불교부흥사업에



서울고속도로(주)와 LG건설 소속 인부 50여명은 18일 송추 원각사 천막법당에서 철야기도중인 회향사 성타 성한 법현스님을 강제로 1km 떨어진 공사장 입구까지 끌어올리려 폭행했다.

자연·수행환경 보호 범불교도대회 개최

3월 5일 조계사에서 비구니 스님 폭행 규탄

전국 본말사 스님 및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자연환경 보존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3월 5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열린다.

이번 규탄 결의대회는 18일 북한산관동도로 저지를 위해 송추 원각사 천막 농성장에서 1000일 정진 기도 중이던 회향사 비구니 성타, 성한, 법현스님이 LG건설과 서울고속도로(주) 직원 30여명에게 폭행당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2·22면

이날 법회에서는 또 금강산 범어

포고 등 제4차 1000일결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정토회는 앞으로 대중중심, 자원봉사자 중심의 대중불교운동인 ‘정토행자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지금까지의 전문가중심 정토회 운동은 대중운동인 ‘정토행자운동’을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정토행자들의 신행공간인 전국 10개의 ‘정토행자당’도 ‘정토회’라는 대중불교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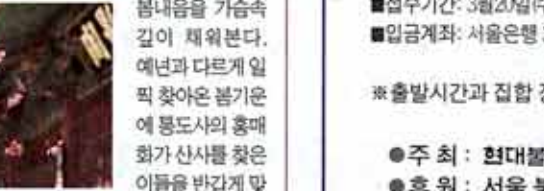
제주 국제도시법 개정 요청

조계종, 전통사찰 원형복원·증개축 가로막아

조계종은 5일 건설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해 ‘전통사찰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지 않아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등의 규제와 함께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전통사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저평가한 것으로 전통사찰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전통문화 체험 시설 등의 적절한 시설설치를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부정하고 있

다. 관련 북한산 회향사, 월정사 지장암, 백양사 천전암, 동화사 양진암 등 전국에 모인 200여 비구니 스님들은 21일 조계사에서 ‘여성 성직자 인권유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 후 비구니 스님들은 여의도 LG그룹사옥을 방문, 비구니 스님 폭행 관련 항의문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LG 측은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항의문 접수를 거부했다. 강유신 기자

일찍 찾아온 봄...통도사 대화 활짝



봄을 재촉하는 대화의 향기에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고 향긋한 이하고 있다. 양산 통도사= 천미희 기자

면 ‘쓰레기 제로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 불교적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새로운 시민환경운동으로 확산시킨다.

이외에도 정토회는 ▲중양수련장 건설 ▲정토대전 편찬 ▲북한난민 지원 등 통일운동 ▲미국 독일 필리핀 등에 대한 포교사업 등을 제4차 1000일 결사 사업으로 확정했다.

한편 정토회는 유수 스님을 새 대표로 선출하고, 한국불교한글교육원 사무국장에게 박석동, 좋은벗들 사무국장에게 노재재 씨 등을 임명했다.

관련기사 3·22면

중앙승가대 역경과 2명 지원 폐과 위기

중앙승가대 역경학과가 폐과될 위기에 놓였다.

중앙승가대가 18일 마감한 2002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 결과 역경학과 지원자는 단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마감한 정시모집에서 역경학과 지원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학과가 지속되기 위한 최소정원(5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전공과목은 자동 폐지된다.

중앙승가대 교학처장 송석스님은 “일단 교육부와 이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며, 3월 개강과 함께 강의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우 기자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대만 불광산사 순례 참관단 모집

현대불교는 대만 불광산사에서 열리는 중국최고의 국보 법문사 석가모니 불지사리 전시회 참관 순례를 실시합니다. 특히 이 불지사리는 ‘세계 9대 기적’으로 불릴 만큼 진귀한 성보입니다. 또 대만 불자들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고 있는 불광산사의 성운대사 천견 법회도 열립니다.

- 일정: 3월28일(목)~4월1일(월) (4박5일)
- 참가비: 97만원(포함내역: 공항세 / 단 여권수수비는 별도)
- 접수 및 문의처: 이스턴관광 (02)779-4747(담당: 엄호일 실장)
- 접수기간: 3월20일(수)까지
- 입금계좌: 서울은행 399908-0725204(예금주: 계명세계여행)

※출발시간과 집합 장소는 추후 공고합니다.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 후원: 서울 불광산사, 대만관광청 서울사무소
- 주관: 계명세계여행사, 이스턴 관광

관련기사 19면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결의대회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은 민족문화의 유산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최근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과 천년고찰의 수행환경 파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범어사와 내원사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경부고속철도’, ‘북한산과 전통사찰을 파괴하는 서울외곽고속도로’, ‘조계사 앞 주상복합건물’, ‘통영 용와사 케이블카 설치’ 등 우리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고 불교계의 환경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 일시: 불기 2546년(2002)년 3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조계사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범불교도 결의대회 추진위원회
● 문의: (02) 735-5864 ● 전송: (02) 735-0614